‘대권 도전’ 박용진 “유능한 진보 지지해달라”

전북 찾아 “100년 사용 솥단지 만들 지도자 필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건설 지원 인구부총리제 도입”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요란한 진보’, 이낙연 전 당대표는 ‘무능한 진보’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100년을 사용할 솥단지를 만들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성장과 관련해 자기 계획과 의지가 분명한 유능한 진보인 제가 국부펀드,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불안하고 요란한 진보는 솥단지 밑까지 박박 긁어서 먹어버리려 하고 있고, 그저 그런 무능한 진보는 솥단지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며 양 주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솥단지 밑까지 박박 긁어서 요란하게만 한다”며 “구체적 계획 없은 허술한 기본소득 등을 보면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솥단지 만드는 과정에서 구경만하고 있다”며 “총리와 당대표 등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기회가 많았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요란한 진보와 무능한 진보가 경선을 망치려 한다”며 두 후보간의 네거티브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캠프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저질싸움에 앞장서는 것을 후보가 문책하지 않으면 이는 후보가 지시한 것이다”라며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전투구를 제일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면서 “경선 경쟁에 갇혀서 경선 전체를 망치는 사람들에게 토론회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저는 이들과 다르게 본선과 미래를 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결선이 치러질 경우 ‘요란한 진보’와 ‘무능한 진보’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박용진의 새로운 진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의 본부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평균 85점’의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한반도 평화관리, 대통령 탄핵 후 정치적 혼란 수습, 코로나 상황 관리 등 3가지를 큰 성과로 꼽으며,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라고 평했다.

지지율이 정체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월에 박용진의 시간이 오면서 판이 한번 확 흔들렸는데, 판이 흔들렸다는 것은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경선 연기 등으로) 지지층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올림픽과 휴가철이 끝나면 제가 판을 뒤집겠다”고 자신했다.

인구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여러 정책이 있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권한을 갖는 전쟁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구부총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부총리 수준 권한을 주고 그 지휘에 다 따라야 한다. 강력한 인구부총리를 두고 이 지휘 하에 모든 권한 몰아넣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인구 감소 변화가 오는데 빨라야 20년, 늦으면 30년이 걸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반전을 준비해야 30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책 능력 차별화, 정책 능력 초격차 그걸 보여주는 게 내 최대 장점이다”며 “국민이 부자 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100년 먹거리의 솥단지’를 만들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고향인 전북 장수군을 방문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21년 제4회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지난 6일 수상했다.

이날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은 청년정책 관련된 법안 발의와 청년층과 소통을 위한 활동을 중점으로 제21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중 종합대상과 정책대상, 소통대상 등 각각 2명씩 6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날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에 앞장섰으며, 청년세대를 위해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청년실업을 비롯해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오늘 이 뜻 깊은 상을 수상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하며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은 미래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인 만큼 계속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宋, 검증단 거부할 명분 없어… ‘이심송심’ 입증”

정세균 전 총리 “모든 사태 책임은 당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지도부가 자신이 제안한 ‘클린검증단’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세간에 떠도는 ‘이심송심’을 송영길 대표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클린검증단 설치를 훼방하고 거부한다면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과 송영길 대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TV토론에서 후보들이 클린검증단 구성에 동의했다”며 “후보들이 공개 토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당이 후보들의 결정을 거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는 ‘클린 검증단 설치’를 즉각 수용하십시오”라며 “결코 당의 경선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경선 후보들의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한 당 내 ‘클린검증단’ 설치를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김두관·박용진·이낙연 후보는 찬성했으나, 이재명·추미애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뉴시스

“한미 국장급 협의, 기존 워킹그룹과 차원 달라”

통일부, 대북 문제 관련… 별도 한미 협의 추진 의지

통일부가 대북 문제 관련 첫 한미 국장급 협의에 대해 “기존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차원의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 이와는 별도의 통일부 차원 한미 협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장급 협의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이번 국장급 협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촉진에 실질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임했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대북 정책 주무부서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에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국장급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은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들도 점검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통일부 차원 별도 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 등 유관부처 회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통일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과 협의를 충실하게 지속할 계획”, “필요한 경우, 필요 수준에서 통일부, 미국 국무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한미 부처 간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진행됐다. 양측은 남북, 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구체 논의를 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